

DT협의회(KoDTi) 운영

산기협 DT위원회

제3회 DT 운영위원회 개최

제3회 산기협 DT위원회가 10월 18일(수)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개최되었다. ▲하이퍼클로바 X 소개(네이버 클라우드 정주환 리더), ▲AI SaaS 소개(네이버클라우드 옥상훈 리더), ▲웨일 소개(네이버클라우드 김주형 리더), ▲네이버클라우드 소개(네이버클라우드 강민석 리더)를 통해 네이버의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하이퍼클로바 X 소개

발표 : 네이버클라우드 정주환 리더

‘하이퍼클로바 X’란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인공지능(AI)으로, 앞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ChatGPT의 한국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기대되는 사업 분야는 B2B(기업 간 거래) 부문 수익화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프로젝트 커넥트X(Project CONNECT X)’다.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제작된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디자인, 코딩 등 기업 내 전문 업무 분야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 AI SaaS 소개

발표 : 네이버클라우드 옥상훈 리더

네이버웍스를 통해 친숙한 메신저앱에 화상회의, 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등 협업에 필요한 기능을 All-in One으로 활용 가능하다. 네이버웍스는 300개 이상의 API를 제공해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클로바노트를 통해 회사의 무형 정보를 자산화하고 직원 업무 시간 절감, 업무 정보 공유를 통한 부서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클로바 케어콜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전화로써 기술을 활용해 중장년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AI콜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 웨일 소개

발표 : 네이버클라우드 김주형 리더

웨일은 네이버에서 공개한 웹 브라우저로, 웹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용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웨일 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웨일 계정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온라인 학습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 선생님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와 즐겨찾기 등을 미리 일괄 설정하고 웨일클래스, 웨일온과 같은 솔루션을 활용해 온라인 교실을 구성하면, 학생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동일한 수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웨일 스페이스는 ‘유저 퍼스트’ 철학을 기반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하며 교육현장에 가장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 네이버클라우드 소개

발표 : 네이버클라우드 강민석 리더

네이버클라우드의 기업의 IT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IT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클라우드 기업이다.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NAVER Cloud Platform, 1999년부터 네이버와 계열사들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축 및 운영해 온 Internal Service 두 개의 사업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두 사업 영역의 역량 및 기술 통합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